

전남도체육회 “전국체전 계기 옛 명성 되찾자”

목포 전국체전 100일 앞두고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회의
“종합 3위 달성해 위상 회복하자”
성공 개최·상위 입상 결의 다져



4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전남의 상위권 입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상위 입상 결의를 다졌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4일 전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한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체전 경기종목인 49개 종목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회장, 전무이사) 등 7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목포 등지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참가 계획(안), 전남선수단 경기력 향상 방안, 전국체전 개최-경기운영 안내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체육회는 이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전남 선수들의 전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은 불참 중별쇄소와 우수선수 영입 등 종목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도체육회에 전달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15년 만에 안방에서

치러지는 체전인 만큼, 어렵지만 전남도가 목표한 종합순위 3위를 달성해 전남체육의 명예와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남도체육회가 적극 앞장서겠다. 종목단체관계자 여러분도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념타월을 들고 전국체전 성공개최와 상위 입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4대천왕' 산체스 PBA 첫판서 또 고배

세계 아마추어 3구 무대를 주름잡아 '당구 4대천왕'으로 군림하다 이번 시즌 프로당구 PBA에 뛰어든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에스와이)가 또 첫 판부터 고배를 마셨다. 산체스는 4일 밤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024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128강 경기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데테)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했다. 선공을 잡은 산체스는 초구에서 무려 10득점을 내며 기세를 올렸고, 마르티네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1세트를 15-13으로 잡았다. 2세트는 5-15로 내준 산체스는 3세트 6이닝에 터진 하이런 7점을 앞세워 15-3으로 다시 앞서갔다. 4세트에서도 6이닝까지 8-6으로 앞섰으나 7이닝부터 3이닝 연속 3득점을 허용해 결국 4세트를 내주고 승부차기로 돌입했다. 산체스의 선공은 빛나갔고, 마르티네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해 승부차기 점수 1-0으로 경기 끝났다. 산체스는 앞서 시즌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 128강전에서 황득희(에스와이)에 패배한 바 있다. 산체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프로 당구 무대에 데뷔해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키너(튀르키예)는 두 번째 투어에서도 무난하게 첫 경기 승리를 쟁겼다. 이흥복과 경기를 치른 세이키너는 세트 점수 3-1로 이겨 64강 티켓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창단 4개월 광주여대 배구 첫 전국대회서 '파란'

선수 전원 1학년으로 구성
대한항공배 준우승 '기염'



광주여대 배구팀이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여대 배구부가 창단 4개월만에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5일 광주여대와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여대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경남 고성 반다비체육관에서 열린 2023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단국대에 세트스코어 2-3(25-18, 12-25, 17-25, 27-25, 14-16)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국대는 올시즌 대학리그에서 전승을 거둔 절대 강자다. 김성은 교수부장·최성우 감독이 이끄는 광주여대는 지난 3월에 창단한 새내기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권 전략을 갖춘 팀으로 배구계의 주목을 받았다. 첫 세트를 25-18로 산뜻하게 출발한 광주여대는 2세트와 3세트를 각각 12-25, 17-25 내줬다. 접전을 가다듬은 광주여대는 4세트를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27-25로 잡아내 승부를 마지막 5세트로 몰고 갔다. 5세트에서도 광주여대는 주장 김예지(미들블로커)를 중심으로 윤가은(미들블로커), 손은진(세터), 김나현(아포짓 스파이커), 차예진-이재은(이상 아웃사이드 히터), 박유리(리베로)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시조계임을 펼쳤다. 하지만 단국대는 대학U리그 전승을 거둔 팀답게 노련미를 앞세워 14-14에서 연거푸 2점을 획득해 광주여대의 발목을 잡았다. 광주여대는 벌써부터 오는 10월 전남 개최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활약을 기대되고 있다. 실제 주전 류은경과 전혜린(이상 아웃사이드 히터)이 각각 부상과 개인사유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파죽지세로 결승까지 올랐다. 선수 전원 1학년인 광주여대는 결승에서 주전 대부분이 4학년인 단국대를 배랑까지 밀어붙였다. 6개팀이 2개조 나눠 조별리그를 거쳐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광주여대는 조별리

그 첫 경기에서 우석대(전북)를 3-0(25-16, 25-22, 25-21) 첫아웃시키며 창단 첫 승을 올렸다. 2차전에서 단국대에게 세트 스코어 0-3(22-25 2-25 10-25)로 패하면 B조 2위로 4강에 올랐다. 4강전에서 A조 1위(2승)인 강호 목포과학대와 만난 광주여대는 1세트를 32-34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잃었지만 2세트를 25-22로 잡아 균형을 맞춘 뒤 3세트와 4세트를 25-14, 25-18로 잡아내면서 3-1로 승리, 기염을 토했다. 상상을 탄 광주여대는 예선에서 0-3 아픔을 안긴 단국대전에서 설욕을 벌였으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광주여대는 개인상도 휩쓸었다. 최성우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주장 김예지는 공격상, 윤가은은 서브상을 수상했다. 광주여대의 준우승은 선수들의 노력과 대학의 관심 및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최성우 감독은 "신생팀이지만 서로 한 발씩 더 뛰자고 의지를 모아 첫 출전에서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힘든 훈련을 자처하고 극복해낸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이 선제 충장을 비롯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US오픈 출전 앞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역사적인 코스에서 경기하게 돼 기대된다"

4년 만에 타이틀 획득 도전
코다·톰프슨과 한조로 출격



고진영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제78회 US 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000만 달러) 개막을 앞두고 유서 깊은 코스에서 경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은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 출전한다. 현지 날짜로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진영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곳에 와서 골프장에는 화요일에 도착했다"며 "수요일부터 연습을 시작했고, 어제와 오늘도 코스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고진영은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타이틀 획득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코스에 대해 "이곳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며 "타이거 우즈나 게리 우들런드가 US오픈에서 우승한 것도 본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우즈는 2000년, 우들런드는 2019년 이곳에서 열린 US오픈을 제패했고, US 여자오픈이 이 코스에서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고진영은 "이 코스는 평소 쳐 보고 싶었던 곳이기에 때문에 매우 기대된다"며 "여기서 경기하게 되면 좋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고진영은 "그런 경사를 읽기가 까다롭고, 스피드도 점점 빨라질 것 같다"며 "러프도 짙고 긴 편이라 그곳에서 좋은 샷을 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메이저 우승이 절박한가'라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고진영은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지금의 내 목표"라고 덧붙였다. 고진영은 한국 시간으로 7일 0시 50분에 벨리코다, 렉시 톰프슨(이상 미국)과 한 조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엘리멘탈, 범피도시3
- 2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라방
- 3관 범피도시3,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 4관 귀공자, 플래닛
- 5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악마들, 빈틈없는 사이, 라방
- 6관 엘리멘탈, 기적을 믿는 소녀
- 9관 악마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풍채기시
- 7관 싸이커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토스트
- 8관 싸이커들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보이스 어프레이드,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회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